

친구 이렇게 만들었어요!

새 학기 첫날, 교실에서 혼자 뻘뻘하게 앉아 있는 건 아닌지, 은근히 걱정되더라고요. 집에 온 아이의 표정을 살피니 괜찮아 보일래 다행이다 싶었죠.

딱 1년 전, 중학교에 입학한 지 며칠 안 되었을 때 아직 말을 튼 친구가 없다며 의기소침해 있었거든요.

올해는 분위기가 사뭇 달라 보여 물어봤어요.

“친구 좀 사귀었니?”

“애들이랑 눈 마주칠 때마다 그냥 웃어 보이니까 다들 쉬는 시간에 나한테 말 걸더라고. ㅋㅋ”

“작년에 몇 반이었어?” “오늘 급식 메뉴 뭐더라?” 이렇게 서로 간단한 대화를 주고받다 보니 어느새 4명이 모여서 이야기를 나눴대요. ㅎㅎ 쉬는 시간마다 약속이라도 한 듯 다시 모이고, 하교 때는 서로 번호도 교환했대요. 1학년 때는 어색해도 먼저 다가야 한다고 용기를 내더니 올해는 좀 수월하게 넘어가네요. ^^

아이의 이야기를 듣고 있으니 새 학기 교실 풍경이 생생하게 그려졌어요. 다음날 아침에도 4명이 또 모여서 이런저런 말을 나누겠죠? 그러다 보면 새로운 반에서도 적응 완료! 이제 1년 동안 우정을 쌓는 일만 남은 거죠~~~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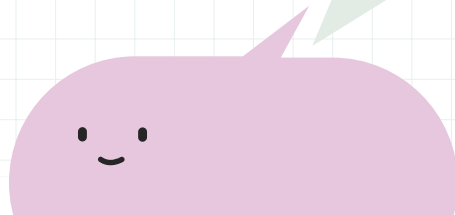


토닥토닥
Talk Zone

토·톡·존

새 학기 교실 풍경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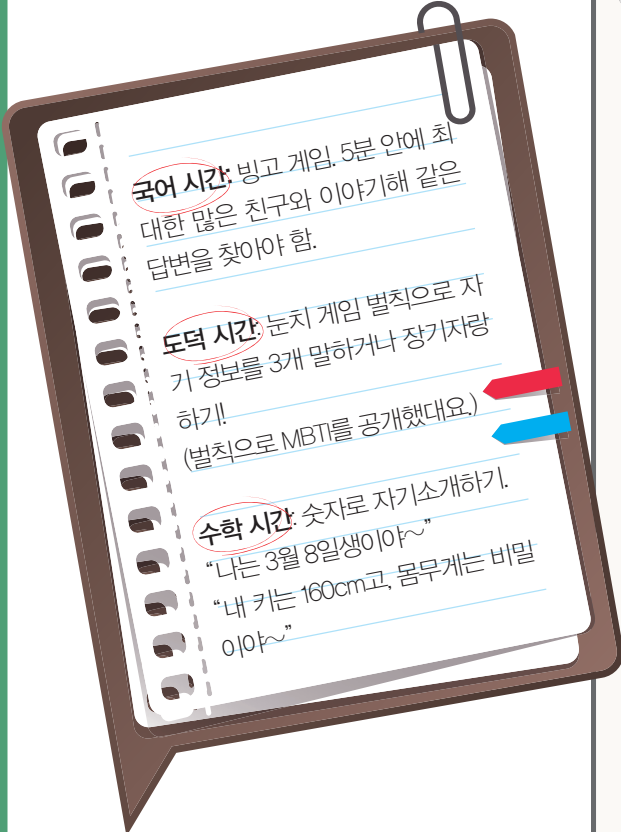
취재 김기선 리포터 quokka@naeil.com





과목별 자기소개 타임

새 학기 첫 주 수업은 자기소개로 채워졌다고 하네요. 벌써 3~4번은 했다고 합니다. 그래도 똑같은 자기소개가 아니라 과목별 특징을 담아서 진행됐다는데, 내용이 재밌네요. 게임으로 자기소개를 하다 보니 긴장감도 없고 반 친구들과 한결 가까워졌다고 즐거워하네요.^^ (국어 시간에 진행한 빙고 게임은 저도 재밌겠더라고요. 가족 모두 모여서 한 번 해보려고요. 좋은 추억이 될 것 같습니다!)@



태어난 월	태어난 일	혈액형	좋아하는 색
5월	19일	B형	보라색
본인의 성씨	장래희망은?	좋아하는 가수	좋아하는 TV 프로그램
김	아직은...	뉴진스!	유쿠즈
짜장 or 짬뽕	좋아하는 과일	프라이드 or 양념?	졸업한 초등학교
짜장	수박	프라이드	화양초
좋아하는 과목	싫어하는 과목	폰 번호 마지막 숫자	좋아하는 계절
음악	과학	5	여름

*빈칸을 채우는 시간은 단 5분!
 *차례대로 본인의 이름을 먼저 말하고 빙고 칸 속 내용을 말하기~ (규칙 지키지 않을 때는 무효)
 *총 3줄의 빙고를 완성하면 손을 번쩍 들고 큰 소리로 이름 말하기 (1~5등에게는 특별한 선물은)